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아폴로 메니지먼트, “연준 2024년에 금리 인하 않는다”
- CNN Business: 미 소매업체들, “올해 쇼핑 감소할 것”이라 경고
- NYT: 미 경제 예상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이민자
- Bloomberg: 미 소비자 심리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 [미국 금융]

- Bloomberg: 트레이더들 경제 지표 주시하며 증시 선물 소폭 흔들

#### [주택]

- CNN Business: 모기지율이 7%로 근접하면서 주택 구매 봄 시즌 시들

#### [환경]

- WSJ: IEA, “작년에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사상 최고치”

#### [원유]

- Bloomberg: 시장의 강세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

#### [세계 경제]

- Bloomberg: 세계 무역 수장들, 협상의 가장 어려운 단계에 직면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Elon Musk, 회사 설립 사명 위반 혐의로 Open AI의 Altman 고소
- Bloomberg: 폭스바겐, 올해 매출 성장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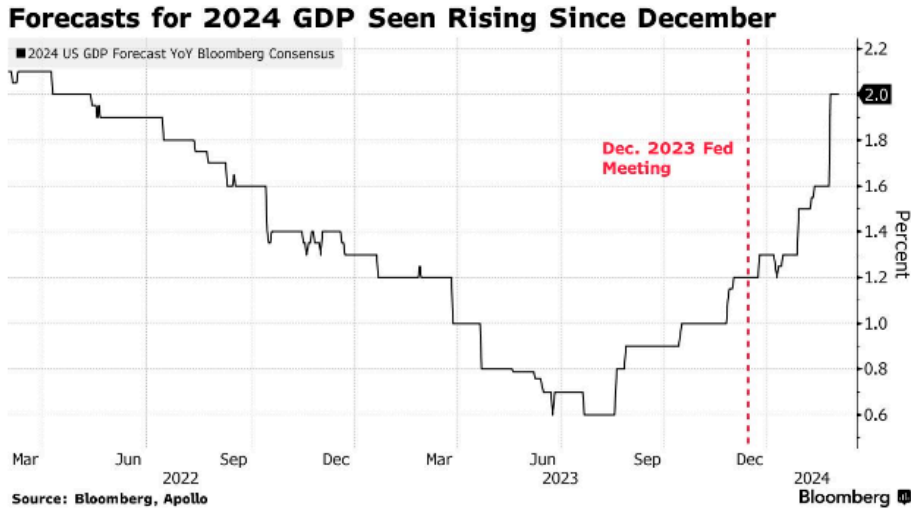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Apollo’s Torsten Slok Says Fed Will Not Cut Rates in 2024** **아폴로 메니지먼트, “연준 2024년에 금리 인하 않는다”**

- 아폴로 메니지먼트의 수석 경제학자인 Torsten Slok는 기저 인플레이션 상승세와 미 경제의 재가속화 때문에 연준은 2024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내부 메모에서 핵심 내용은 연준의 올해 대부분의 시간을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채권 수익률 수준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Retailers warn Wall Street to expect less shopping this year**  
**미 소매업체들, “올해 쇼핑 감소할 것”이라 경고**

- 기업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경고했다. 미 소비자들이 고금리 속에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힘든 경제 환경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고가 현재는 더 커지고 있다.
- 주택 개량사인 Lowe’s사는 4분기 총매출로 최대 8백50억불을 예상하는데, 이는 작년 8백64억에 미달된다.
- 메이시 백화점의 경우도 현 회계연도에 순 매출이 최대 2백29억불 추정되어 작년의 2백31억불에 미달된다.
- 베스트 바이의 2025년 회계연도 매출이 최대 4백26억불로서 이는 2024년 회계연도의 4백35억달러 아래다.

CNN Business 기사

**NYT: The U.S. Economy Is Surpassing Expectations. Immigration Is One Reason.**  
**미 경제 예상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이민자**

- 이민자들이 팬데믹의 회복을 도왔으며 향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의 도전 과제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여 일자리를 지원하느냐 이다.
-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비자 처리가 다시 시작됐고 고용이 급증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공백의 노동력을 외국 태생 근로자들이 메웠다.
- 향후 10년간 외국 태생의 노동 인구가 18.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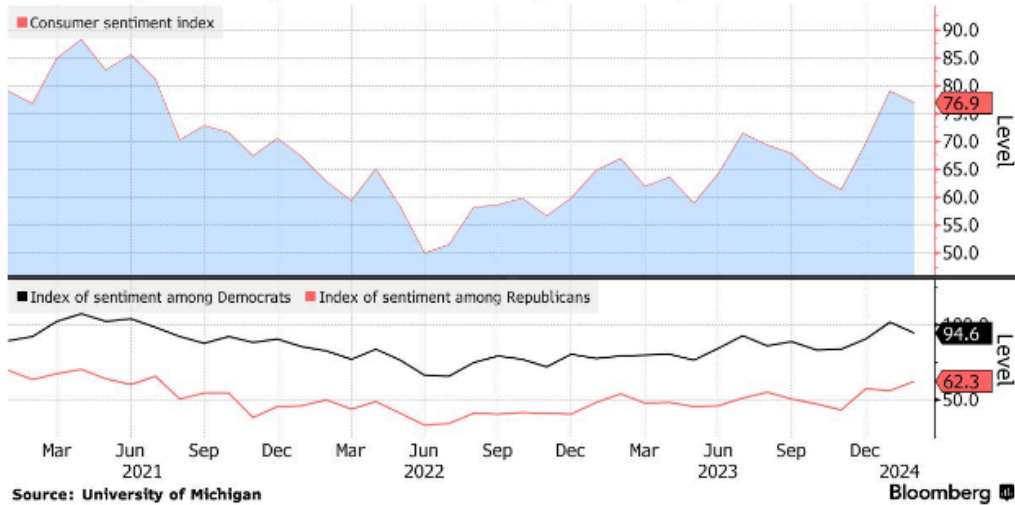
NYT 기사

###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Declines for First Time in Three Months

#### 미 소비자 심리가 3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

-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가 예상보다 미달했다. 당초 예상치는 79.6이었으나 76.9로 하락했다.
- 이에 따르면 미 소비자들은 물가가 향후 1년간 연 3%로 상승할 것이라 말했다. 1월에는 이 비율이 2.9%였다. 향후 5년에서 10년 기간에 물가는 2.9%로 예상해 전월의 조사와 같았다.

### US Consumer Sentiment Falls for First Time in Three Months Americans grew more pessimistic on economy in February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Stocks Waver as Traders Weigh Economic Reports: Markets Wrap

#### 트레이더들 경제 지표 주시하며 증시 선물 소폭 흔들

- 주식과 채권, 달러가 3월을 맞이해 소폭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트레이더들이 경제 지표와 연준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다.
- 2월에 증시가 최고치에 근접했던 이유는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 때문이었다.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2월 미국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3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2월 공장 활동 지표도 주문, 생산, 고용이 위축되면서 제조업이 고군분투 하는 모습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CNN Business: Mortgage rates edge closer to 7%, dampening start of spring homebuying season****모기지율이 7%로 근접하면서 주택 구매 봄 시즌 시들**

- 주택 구입이 활발한 봄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모기지율이 4주째 연속 상승해 7%에 근접했다
- 2월 29일로 끝나는 주에 30년 모기지율이 6.94%로 전주의 6.90%에서 상승했다고 Freddie Mac은 발표했다. 1년전의 경우 30년 모기지율은 6.65%였다.
- 이같은 모기지율 상승은 주택 구매가 활발하게 시작하는 봄 시즌의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환경]****WSJ: Global CO2 Emissions Hit Record High in 2023, IEA Says  
IEA, “작년에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사상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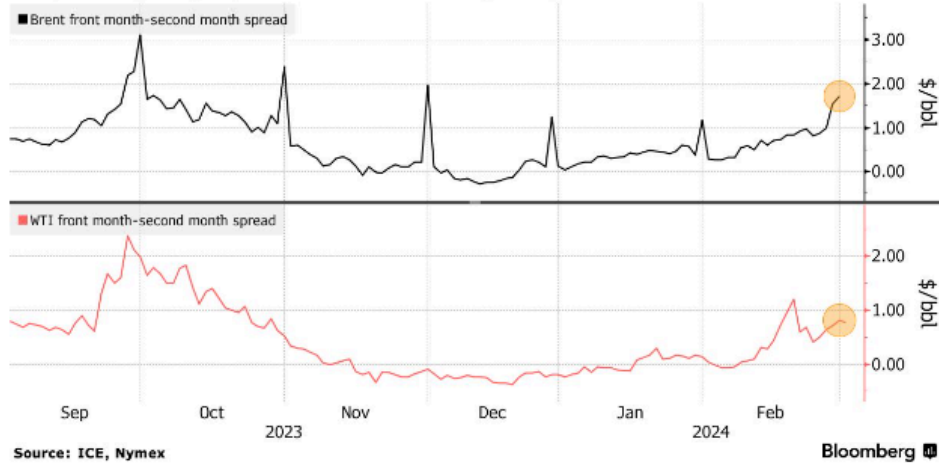
- 국제 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대규모 경제권의 수력 발전 중단으로 인해, 화석 연료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IEA는 금요일 최신 보고서에서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이 전년 대비 4억 1천만톤(1.1%) 증가하여 2023년에는 3백74억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분은 40% 이상을 차지했다.
- 인도와 중국의 경우,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석탄 의존도와 전력 수요 증가로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다른 국가들의 감축량을 상쇄했다.

WSJ 기사

**[원유]****Bloomberg: Oil Climbs Toward \$80 a Barrel as Spreads Signal Market Strength****시장의 강세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

- 오일가가 80달러로 상승했다. 긴장된 지정학적인 리스크과 OPEC의 계속된 감산으로 인한 긴축 시장으로 인한 탓이다.
- 서부 텍사스 중질유가 3% 가까이 상승하며 11월 이후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수백척의 원유 탱커들이 홍해를 피하면서 실물시장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이다.

**Oil's Near-Term Timespreads Reflect Strength**  
**WTI, Brent prompt spreads have been rising this year**



Bloomberg 기사

[세계 경제]

**Bloomberg: World Trade Chiefs Inch Toward Deal With Hardest Steps Ahead**

세계 무역 수장들, 협상의 가장 어려운 단계에 직면

- 회담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지난밤 WTO는 농업 보조금, 남획, 무관 세 전자 상거래를 비롯한 국제 무역 확대를 위한 합의에 진전을 이뤘다.
- 160여 개국의 협상가들은 어업 보조금을 억제하기 위한 타협안을 놓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지만, 농업 부문에서 공공 원조 감축과 장벽 해소를 위한 로드맵에 대한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회담을 지속하기 위해, WTO 제13차 폐회식은 아부다비에서 오후 5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세 번째 미뤄졌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Elon Musk Sues OpenAI, Altman for Breaching Firm's Founding Mission**

Elon Musk, 회사 설립 사명 위반 혐의로 Open AI의 Altman 고소

- Elon Musk가 OpenAI의 최고경영자 Sam Altman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설립 사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 Open AI의 공동 창립자였지만 더 이상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Elon Musk는, 지난 목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Open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기업 우선순위에 적용을 받지 않고 오픈 소스 기술을 개발한다는 기존의 사명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Volkswagen Sees Revenue Growth Slowing as Industry Struggles****폭스바겐, 올해 매출 성장 둔화 예상**

-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전기 자동차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폭스바겐의 올해 판매 성장이 감소할 것이라는 발표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하락했다.
- 폭스바겐은 금요일 실적을 통해 신제품 출시로 2023년 매출 2천4백80억 달러를 5%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작년의 15% 판매 성장에서 하락한 수치다.

## Bloomberg 기사

**[보고서]****美의회, 추가 임시예산안 처리...셧다운 위기 재차 봉합****회계연도 개시후 4차 임시예산안 양원 통과...바이든 "좋은 소식"**

미국 의회가 일부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29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20표, 반대 99표로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97명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도 표결에서 찬성 77표, 반대 13표로 임시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